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33호 【루계 제25276호】 주체105(2016)년 5월 12일 (목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사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과업관철에 총매진하여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자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으로 되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끝마치고 폐막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우리 당에 대한 천만군민의 고결한 충정과 절대적인 신뢰심이 최대로 분출되고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온 나라 전체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가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우리 나라를 국력이 강한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우신 불멸의 업적을 총화하시고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진로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보고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나아가는 조선로동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한 강령적문헌이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 매우 의의깊은 대회였다.

대회에서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당의 최고수위에 모심으로써 우리 당은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빛을 뿌리게 되였고 주체조선의 창창한 미래가 굳건히 담보되게 되였다.

지금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당 제7차대회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합니다.》

당 제7차대회는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천만년 드높이 앞을 기를을 마련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높은 목표와 투쟁강령을 제시한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나고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주적인 혁명로선과 혁명방식을 확고히 계승해나가는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한 자랑찬 승리의 대회이다.

조선혁명의 백승의 력사는 우리 당의 혁명로선과 혁명방식의 줄기찬 계승의 력사이다. 천대미문의 엄혹한 시련속에서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지고 조국땅우에 세기를 주름잡는 강성번영의 새시대가 펼쳐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자주적인 혁명로선과 혁명방식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증시이다.

대회는 장구한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고 조국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시대적모범을 창조한것은 주체사상,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라는데 대하여 확증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견지하여오신 자주적인 혁명로선과 혁명방식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켜나가려는 우리 당의 혁명적립장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지금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위업의 필승불패성을 심장깊이 새겨안고있다. 당대회는 천만군민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수령의 사상과 위업실현에로 고무추동한 대회로 우리 당력사에 길이 전해질것이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높이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휘황한 앞길을 밝힌 력사적인 대회이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우리 당의 최고강령이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는 여기에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이 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이 류례없는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해나가고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 견인력에 대한 힘있는 과시로 된다.

대회에서는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할데 대한 강령적과업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졌다. 사회주의건설의 총노선과 자강력제일주의를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며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데 대하여 강조한것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백승의 위력으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려는 우리 당의 억척불변의 의지의 발현이다. 사회주의강국의 징표들이 제시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목표가 명시됨으로써 인민의 자주적리상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는 더욱 빨라지고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가 있다는것이 영광넘친 투쟁로정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며, 걸어갈 혁명의 천만리길을 배심있게 내다보며 우리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이 다시금 새겨안은 철리이다. 이번 당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사회주의위업수행의 만년초석으로, 백승의 기치로 틀어쥐고 만대에 빛내여나가려는 천만군민의 철석의 의지를 보여준 충정의 대회로 영원히 빛날것이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세계자주화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대회이다.

조국의 자주적통일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이고 유훈이다. 대회는 조국통일의 실현을 조선로동당의 가장 중대하고 절박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방침을 내놓았다.

뜨거운 조국애, 민족애가 넘치는 우리 당의 주체적조국통일로선은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 나라의 구체적현실을 반영한 가장 합리적이고 자주적인 로선이며 조선민족의 피줄을 타고난 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누구나 다 받아들일수 있는 공명정대한 방안이고 실천속에서 그 생활력이 확증된 과학적인 로선이다. 이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 나라를 8천만의 인구와 막강한 국력을 가진 세계적인 강대국, 민족의 강의한 정신과 뛰여난 슬기로 세계를 앞서나가는 선진문명국, 동북아시아와 세계정화를 선도하는 정의의 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려는것이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염망이다.

대회를 통하여 우리 당은 현시기 국제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혁명적이며 원칙적인 립장을 천명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강권과 전횡, 침략과 주권침해행위를 짓부시고 틀력불가탄운동을 강화발전시키며 자주성을 옹호하는 당들과 단체들, 진보적나라들이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단결하고 협력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 당이 제시한 세계자주화위업실현의 과업과 방도들은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적인류의 심장을 뜨겁게 격동시키며 커다란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이번에 진행된 당대회는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자주시대의 용용한 조류를 선도해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기상과 불굴의 기개를 과시한 대회로 빛나고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우리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그 령도적역할을 천백배로 높여나가는데서 력사적인 리정표를 마련한 대회이다.

당안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혁명의 승패와 관련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우리 당이 수십성상 사소한 퇴색과 탈색도 없이, 추호의 흔들림이나 양보도 없이 백두에서 개척된 조선혁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올수 있은 근본비결은 수령의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그 령도력과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여온데 있다.

대회는 조선로동당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공고발전되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특출한 성과를 이룩한것은 혁명적당건설의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고 선언하고 당의 강화발전과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였다. 우리 당을 위대하고 존엄높은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끝없이 빛내이며 그 령도적역할을 높여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려는 드팀없는 의지를 천명한 여기에 당 제7차대회가 가지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지금 우리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세상에 유일무이한 수령의 당, 불패의 전투력을 지닌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가는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으며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불타는 결의로 가슴끓이고있다. 대회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건설의 새로운 전환적리정표로, 당에 대한 천만군민의 신뢰심을 백배해준 력사적계기로 되였다.

당 제7차대회의 기본정신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을 발휘하여 총공격전, 총결사전을 벌림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는것이다.

《전당, 전군, 전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과업관철에 총매진하여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자!》, 이것이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투쟁구호이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앞에는 계속혁명의 기치높이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과감히 전개해나가야 할 영예롭고도 중대한 임무가 나서고있다.

혁명과업은 매우 방대하고 적대세력들의 책동도 악랄하지만 우리가 마음먹고 달라붙어 투쟁하면 짧지 못할 난관, 점령 못할 요새가 있을수 없다. 우리에게는 당의 세련된 령도가 있고 자력자강의 고귀한 력사와 전통이 있으며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일심단결의 위력한 무기가 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자기 힘에 대한 믿음, 주체조선의 찬란한 미래에 대한 확신에 넘쳐 계속혁신, 계속전진, 련속공격해나가야 한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높은 단계에서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백두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은 전인미답의 생눈길을 헤치면서 멀리 전진하여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에 들어섰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와 혁명발전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위한 사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전당, 전군, 전민이 우리 당의 지도사상인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의 혁명사상과 당정책에 배치되는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와 요소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더욱 굳게 뭉치며 당중앙의 절대적인 권위를 백방으로 절사옹위하여야 한다. 모든 사업을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조직진행하며 당의 결정,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 강한 혁명적규률을 확립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받들며 혁명의 한길을 곧바로 걸어가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 그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생명선으로 삼고 절사관철하는 불굴의 투사들로 철저히 준비시켜야 한다. 모든 사업을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에 지향시키고 복종시켜나감으로써 온 나라에 당의 사상과 숨결이 세차게 맥동치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은 혁명의 최고리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이며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하루빨리 건설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혁명적인 로선이다.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강국건설강령을 수행하는데서 주타격방향은 경제를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것이다. 우리에게는 모든 조건과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마음먹고 달라붙어 투쟁하면 짧은 기간에 경제건설에서 전환을 가져올수 있다.

내각과 경제지도기관들, 경제지도일군들은 당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집행계획을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우고 구체적인 작전과 지도사업을 잘하여 경제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인민경제 선행부문에 총력을 집중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문제를 푸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부강조국건설을 앞장에서 이끌어나가는 기관사가 되여야 한다. 국방공업부문에서는 군자리혁명정신을 백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나가며 국방과학부문에서는 국방공업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강화하고 현대화, 과학화수준을 높여 주체적국방공업의 위력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의 핵강국에서 살며 투쟁하는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미래에 대한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에 총매진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한 강령적과업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진로를 뚜렷이 밝힌 백승의 지침이며 천만군민을 새로운 혁명적진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전투적기치이다.

당조직들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심장마다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우리 혁명은 필승불패이라는 철의 진리를 더욱 깊이 심어주어야 한다. 혁명적수명관과 열렬한 조국애, 불굴의 신념과 투철한 계급의식, 고상한 도덕관을 억척같이 쪼아박는 사상의 정대, 마치와 같은 5대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가야 한다. 사상교양사업을 혁명과업수행에 기본을 두고 대상의 특성과 준비정도에 맞게, 현실성있게 진행하며 침입식사상사업방법의 요구대로 사상공세의 대상을 바로 정하고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야 한다. 당에서 중시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교양, 선동, 강연, 출판보도를 비롯한 선전선동방법과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려온 나라에 우리 당의 혁명정신이 차넘치고 새로운 비약과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한다. 전당에 인민의 힘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는 기풍이 차넘치게 하며 당사업의 주되는 힘을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야 한다.

일군들은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조직사업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빈틈없는 작전과 능숙한 지휘는 전투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모든 일군들은 대중을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불러일으키는 야전형의 지휘성원이 되여야 한다.

언제나 새벽문을 남먼저 열고 현장을 밟아보면서 실태를 환히 꿰들며 작전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전투진지도 남먼저 차지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 자강력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원칙에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조국땅우에 만리마의 기상이 차넘치고 거창한 창조와 위대한 변혁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일어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대중의 정신력을 충폭발시키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물질기술적잠재력을 총집중, 총동원하여 풍만한 결실을 맺게 하는 능숙한 조직자가 되여야 한다.

일군들은 자기가 고생하는것만큼, 진정을 바치는것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당중앙위원회 뜨락에 피줄처럼 이어지게 된다는것을 항상 명심하고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생눈길을 헤쳐나가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여야 한다. 오분열도식일본새를 없애고 실지 인민생활향상에 도움이 되고 나라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 결장을 보아야 한다.

당대회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군민대단결,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을 높이 떨쳐야 한다.

군대와 인민이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의 일치를 이루고 투쟁해나가는 군민대단결, 군민협동작전은 핵폭탄보다 더 위력한 선군조선의 최강의 무기이며 최후승리의 진격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인민군장병들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 무슨 일이나 전격전, 립체전을 벌려 단숨에 해제끼는 무비의 담력과 실천력, 그 어떤 난관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는 불굴의 투쟁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해나가는데서 언제나 주동이 되고 기둥이 되여야 한다.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며 군대와 인민의 혈연적뉴대를 강화하고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활짝 꽃피워나가는데서 기수가 되고 선구자가 되여야 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군군인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헌신적인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워 자기의 혁명초소를 화선으로 여기고 명령받은 전사의 자세에서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해나가야 한다. 온 사회에 군사를 중시하고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는 기풍이 딱 차넘쳐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백전백승의 령도가 있고 당이 먼개를 치면 우리로 화답하며 장산을 진감시키는 천만군민이 있기에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당 제7차대회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자의 영예를 높이 떨쳐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가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

존경하는 동지

나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당신께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조선로동당과 꾸바공산당이 앞으로도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길에서 우리 두 나라사이의 형제적뉴대와 협조를 더욱 강화해나가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합니다.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라울 까스뜨로 루쓰

2016년 5월 10일 아바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일본국회 참의원 의원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여 그이께 이노끼 간지 일본국회 참의원 의원이 11일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 축하를 드립니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동지

원수동지

나는 당신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되신것과 관련하여 당신께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거대한 중책을 지니신 당신께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실것과 아울러 당신의 현명한 령도밑에 친선적인 귀국과 귀국인민에게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친선적인 귀국이 온갖 도전에 직면하고있는 때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진행된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을 근본목적으로 하는 귀 당의 기본리념과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할데 대한 선군정치로선에 튼튼히 토대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고 경제강국건설에서 위대한 혁신을 창조하며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해 계속 투쟁해나가려는 귀 당의 립장을 똑똑히 보여주는 계기로 됩니다.

1945년 10월에 진행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창립대회는 조선에서의 새 사회건설과 조선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사변이였으며 최근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반제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따라 혁명과 건설을 계속 추진해나가기 위한 귀 당의 투쟁의 련속과정입니다.

나는 이 계기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영원한 주석이신 김일성각하께서 지니시였던 리념과 풍모를 그대로 체현하시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조선혁명의 근본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며 투철한 항쟁사상과 로선으로 최악의 환경속에서 귀국인민을 승리에로 이끄신 국가령도자이시며 위대한 애국자이신 김정일각하의 거룩한 업적에 대하여 돌이켜보게 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조선로동당으로부터 커다란 신뢰를 받으신 당신께 다시한번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김정은원수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

2016년 5월 10일 다마스끄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시대의 축복과 만인의 환심속에 성대히 거행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민족의 찬란한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였다는 격동적인 소식에 접한 남녘민중들은 지금 해솟는 바다처럼 무한한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주체혁명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전체 조선로동당원들을 비롯한 천만군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분출이고 반제민전을 비롯한 이 땅 변혁운동가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일치한 지향과 열원의 반영으로서 주체혁명위업과 조국통일운동사에 특기할 민족적대경사입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다함없는 흠모와 뜨거운 충정의 마음을 담아 민족의 최고령도자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시위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만천하에 과시한 승리자의 대회,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천만년기틀을 마련하고 민족자주위업완성의 새로운 리정표를 세운 영광의 대회로 찬연히 빛나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이후 오늘에 이르는 수십성상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를 긍지높이 총화하고 위대한 당의 항도따라 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최후승리를 향해 폭풍노도쳐가는 주체조선의 장엄한 기상과 기개를 만방에 과시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심으로써 반만년민족사에 가장 영광스러운 장을 아로새기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심으로써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명맥이 굳건히 이어지고 민족자주위업과 조국통일위업실현을 위한 새로운 력사적진군의 필승의 담보가 확고히 마련되게 되였습니다.

오늘의 이 경사는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시고 민족의 영원한 수령들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과 절대적인 권위, 불멸의 업적이 안아온 특대사변입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들의 탁월한 사상과 현명한 령도, 숭고한 덕망을 그대로 체현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일찍부터 위대한 장군님과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함께 이어가시며 시대와 력사앞에 길이 빛날 거대한 공적을 쌓아올리시였습니다.

숭고한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령영생위업실현의 가장 빛나는 장을 아로새기시고 천만군민을 수령의 유훈관철전에로 총궐기시키시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성스러운 혁명력사가 영원히 줄기차게 흐르도록 하시였습니다.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기적창조의 포성을 높이 울리시였습니다.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내외적대세력들과의 가장 치렬한 대결전이 벌어지고 최악의 역경이 겹쳐든 최근년간 탁월한 령도로 민족사에 특기할 혁혁한 승리와 경이적인 사변들을 련이어 이룩하시어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힘있게 떨쳐주시였습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모한 군사적도발과 핵전쟁책동을 선군의 위력으로 짓부시고 첫 수소탄시험과 지구반측위성발사의 장쾌한 뢰성으로 자주의 핵강국, 우주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친데 이어 70일전투의 영예로운 대승리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력사에 특기할 대정치축전으로 빛내일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희세의 선군령장이시며 백두산대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리혜안의 선견지명과 비범한 통찰력에 의해 자주, 선군, 사회주의길로 곧바로 나아갈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만년대계의 전략이 구현되여 오늘 북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영예를 빛내이며 이르는 곳마다에 민중중시, 민중존중, 민중사랑을 노래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련이어 일떠세우고있습니다.

민중을 하늘처럼 받드시며 민중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민중사랑, 후대사랑에 의해 이북민중의 꿈과 리상이 전면적으로 펼쳐지고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는 북녘의 경이적인 화폭에서 우리 이남민중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천의 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시는 절세위인의 거룩한 애민의 세계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통일된 강산에서 온 겨레가 복락할 만복의 그날을 그려보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혼실현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온 겨레를 조국통일대진군운동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위대한 선군정치, 불패의 군력으로 이 땅에 무접게 드리웠던 전쟁의 먹구름을 가셔버리며 민족적화해와 단합, 남북관계개선의 새로운 전망을 펼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통일3대원칙과 력사적인 공동선언들을 고수리행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여 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시였으며 광복의 도량과 덕망으로 온 겨레를 한품에 안아 민족대단결의 대하에 합류시켜주고계십니다.

특히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을 조국통일3대헌장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당의 투쟁방침으로 천명하시고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구체적방략과 방도들을 제시해주신것은 위대한 주석님과 장군님의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계승하고 철저히 관철하여 겨레의 조국통일념원을 기어이 이룩하시려는 확고한 통일의지와 뜨거운 민족애, 대범한 용단의 발현으로 됩니다.

반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하루빨리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을 응지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에서 조국통일운동을 개척하시고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주석님과 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뵈옵고있으며 원수님께서 계시여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이 반드시 일떠설것이라는 락관과 신심에 넘쳐있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 숭고한 덕망으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누리에 떨치시며 주체혁명위업, 조국통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만고절세의 위인이시며 21세기의 찬란한 태양이십니다.

온 겨레와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존경과 칭송을 받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권위있는 조선로동당의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모두의 무상의 영광이고 최대의 행운입니다.

오늘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21세기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민족자주위업수행의 진두에 모신 무한한 행복과 긍지를 가슴에 안고 원수님의 령도따라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가열차게 벌려나갈 열의에 충만되여있습니다.

우리들은 천재적인 예지와 비상한 통찰력, 무비의 담력과 배짱, 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민족의 강대성을 떨치시며 통일조국을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민족의 최고령수,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일편단심 높이 받들어모시겠습니다.

민족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위대성으로 든든히 무장하고 원수님의 절세위인상을 각계 민중속에 깊이 심어줌으로써 6.15통일시대에 김정일열풍이 휘몰아쳤던것처럼 김정은숭배열풍으로 남녘천지가 세차게 끓어번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시기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이남변혁운동을 선도하던 그 기세, 그 열정으로 반제민전을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며 원수님의 령도따라 최후승리에로 돌진하는 사상의 순결체, 행동의 통일체, 강철의 전위대오로 반석같이 다져나가겠습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이남변혁운동의 유일무이한 지침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대중운동의 열풍을 거세차게 일으켜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방침, 방안과 방도들을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강령적지침으로 삼고 그를 철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총매진하겠습니다.

동족에 대한 모략과 음모의 소굴들과 반북대결악법, 인권말살악법을 철폐하고 대결광신자들의 동족적대시정책과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도높게 벌려나가겠습니다.

내외적대세력들의 책동은 악랄하고 시련과 역경은 겹쌓여있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 민족, 민중의 마음은 든든하며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는 이남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우리 반제민전과 각계 애국민중이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싸워나가게 하는 백전백승의 기치이며 무한대한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민족의 진두에 계시고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우리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있으며 불멸의 통일대강과 좌표가 있기에 조국통일의 최후승리는 반드시 태양의 빛발따라 나아가는 우리 민중이 쟁취하게 될것입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일치한 마음을 담아 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하여,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과 김정은시대의 무궁번영을 위하여 민족의 태양이시고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105(2016)년 5월 10일 서울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올립니다

온 세계의 환심과 시대의 축복속에 막을 올린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가 일심단결의 대회, 승리의 대회로 성대히 지행되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는 격동적인 소식에 접하고 크나큰 기쁨과 격정에 넘쳐 삼가 이 편지를 올립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가장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당을 불패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한 력사적대업을 백승에로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 다함없는 충정의 뚜렷한 표시이며 원수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천만군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의 남김없는 과시로 됩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민족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오늘의 대경사를 경축하여 전체 재중동포들의 한결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처음으로 당대회주석단에 높이 모시고 열린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서의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시위한 승리의 대회,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전성기를 맞이한 영광의 대회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당 제6차대회이후 35년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령도아래 만난을 헤치고 조선로동당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를 긍지높이 총화하시고 민족번영을 위한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는 주체조선의 무강번영과 조국통일대업,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완전무결한 해답을 준 백과전서적인 불멸의 대강이며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실천, 숭고한 덕망으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거대한 세기적업적을 쌓아올리시여 온 겨레와 인류의 다함없는 경모와 존경을 받고계십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령도자와 인민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일심단결이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조국땅우에 자력자강으로 세기적쾌거를 잡으며 강성번영을 이룩해나가는 만리마시대, 창조와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는 위대한 현실은 온 겨레와 인류를 끝없이 경탄케 하고있습니다.

독창적인 경제와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제시하시여 불과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우리 조국을 소형화, 정밀화된 수소탄과 최첨단핵타격수단들,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까지 보유한 천하무적의 핵강국으로, 모든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는 인민의 나라로 우뚝 올려세우신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라와 민족앞에 쌓으신 공적중의 공적입니다.

지금 해내외 온 겨레와 세계 진보적인류는 원쑤들의 전대미문의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강국의 최전성시대를 펼쳐가고있는 우리 조국, 사회주의조선의 눈부신 현실에 찬탄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민족의 강대성은 결코 령토의 크기에 있는것이 아니라 민족을 이끄는 수령의 위대성에 달려있으며 민족의 가장 큰 행운은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는데 있다는것을 더더욱 폐부로 절감하고있습니다.

진정 온 세계가 위대한 김일성민족, 사회주의조선을 우러러보게 하시려는 배짱과 담력으로 우리 민족이 세세년년 애타게 바라오던 부국강병의 세기적숙망을 가슴후련하게 풀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8천만 겨레가 대대손손 머리숙여 칭송하고 높이 받들어모셔야 할 절세의 영웅, 위대한 태양이십니다.

오늘 주체조선의 선군태양은 사랑과 예지, 정의와 자주의 눈부신 빛발로 온 세계를 밝혀주고있습니다.

그 빛발속에 대대로 수령복, 장군복, 위인복을 누리는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 김정은시대 우리 겨레의 삶도 빛나고있습니다.

하기에 이역땅에서 당 제7차대회소식과 당 제7차대회를 경축하는 평양시군중대회 및 군중시위를 TV화면을 통해 시청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의하시고 인자하신 태양의 영상을 한없는 격정속에 우러를수록 우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전체 재중동포들의 가슴속에 더욱 억척같이 새겨지는것은 원수님께서만 계시면 이 세상 천지가 엎백번 변하고 그 어떤 적대세력들이 덤벼든다 해도 절대로 두렵지 않으며 최후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이라는 필승의 신념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태양민족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귀중히 간직하고 8천만 겨레의 하늘이시고 운명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결사옹위하는 천겹만겹의 해외요새, 방패가 되겠습니다.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청년강국으로 온 누리에 위용떨치고있는 우리 조국이 하루빨리 경제강국, 문명강국의 전렬에 들어서기 위한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지세찬 진군에 우리 재중동포들도 적극 합류하여 자욱을 남기겠습니다.

온 겨레의 운명이시고 미래의 전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항상 안녕하시고 건강하심은 우리 모든 해외동포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전체 재중동포들의 뜨거운 충정과 절절한 소망을 담아 백두산대국의 무궁번영과 주체적해외동포운동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세계자주화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주체105(2016)년 5월 10일 중국 심양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인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 팔레이시아 전국말라이통일당 총비서, 얀마련맹련대성말전당 총비서, 몽골독립통일당 위원장, 수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파키스탄인민당 위원장, 《끼르기즈 엘》인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 튀르끼예조국당 위원장,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 중앙지도리사회 위원장과 총서기, 인디아사회주의통일중심당(공산주의) 총비서, 이딸리아정화와 사회주의운동 총비서, 모잠비끄해방전선당 총비서, 탄자니아혁명당 총비서, 에찌오피아람사회주의당 위원장, 에티오피아인민혁명민주전선 리사회 서기국, 미국12월12일운동 중앙위원회 위원장, 국제비서, 고문, 브라질공산당 중앙위원회, 브라질자유조국당 위원장, 뻬루공산당(붉은 조국)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국제비서, 우루과이3월26일운동 위원장, 에꽈도르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에꽈도르사회주의 좌법한 전선당 위원장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또한 이딸리아의 공산당 국제부장, 국제김일성상리사회, 국제김정일상리사회 서기장,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사무국장,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 리사,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을 비롯하여 로씨야, 중국, 네팔, 레바논, 말레이시아, 몽골, 방글라데슈, 수리아, 스리랑카, 캄보자, 라이, 파키스탄, 이란, 인도네시아, 인디아, 도이췰란드, 벨지끄, 스위스, 스웨리에, 뽈스까, 아일랜드, 이딸리아, 세네갈, 탄자니아, 앙골라, 우간다, 메히꼬, 브라질, 아르헨띠나, 에꽈도르,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의 정계, 사회계, 군부, 경제계의 고위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친선단체대표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당 제7차대회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강화발전시켜오신 조선로동당이 인민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웠으며 나라의 존엄과 위용을 온 세계에 과시한데 대하여 그들은 격찬하였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적당건설업적을 빛내여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최후승리를 만드시 이룩할것이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하였다.

한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 전국집행위원회, 앙골라인민해방운동 중앙위원회에서와 에찌오피인민전선당 위원장, 메히꼬 민족재생운동당 전국집행위원회 총비서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아프리카민주련합-기네민주당 총비서대리와 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동맹-애국전선당 행정비서가 축전을 보내여왔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신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일제히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신 소식을 8일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이 일제히 보도하였다.

미국의 VOA방송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시는 소식을 방영하였다. 그이께서는 보고에서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라고 하시면서 총결기간 혁명앞에 가로놓인 준엄한 난국을 주동적으로 타개하고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이룩한 승리와 성과들은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해 마련된 고귀한 전위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당건설의 총적과업이라고 천명하시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보고에서 총결기간 공화국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을 언급하시고 당을 강화하며 공화국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총결기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고립압살책동이 강화되는 속에서도 나라의 대외관계가 확대발전되였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비록 지난날에는 적대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조선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들과는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해나갈것이라고 밝히시였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국통일위업은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는 복잡한 속에서도 년대와 세기를 이어 전진해올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로동당의 일관한 대외정책리념이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조선당과 정부의 일관한 립장이라고 천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조선로동당앞에 나선 가장 중대하고 절박한 과업이라고 하시면서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에 저촉되는 각종 법률적, 제도적장치들을 없애버리고 환경발전에 유익한 실천적조치들을 취하며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출로를 함께 열어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또한 조선의 분렬에 관련있는 나라들과 주변국들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부추기지 말고 조선의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실용위성들을 더 많이 제작, 발사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조선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조선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것이며 핵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리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고 전하였다.

미국의 AP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북과 남이 여러 분야에서 각이한 급의 대화와 협상을 적극 발전시켜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미국은 조선반도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하시였다고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신속히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소식을 9일 세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신속히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되시였다. 평양에서 진행되고있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이러한 결정서가 채택되였다고 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9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평양에서 폐막되였다.

대회에서는 김정은령도자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폐회사에서 《나는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의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중임을 맡겨준 대표자동지들과 전체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최대의 신임과 기대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이 한몸을 아낌없이 내대고 굴함없이 싸워나갈것이며 설사 몸이 찢기고 쓰러진다 해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나 변함없이, 사심없이 우리 인민을 높이 받들어 혁명앞에 충실할것을 맹약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찌통신, 인테르팍스통신, 신문들인 《로씨스까야 가제따》, 《꼼메르산뜨》, 《꼼쏘몰스까야 쁘라우다》, 《모스꼽스끼 꼼쏘몰레츠》, 《브즈글랴드》, 엔테웨TV방송, 오네르테TV방송, 에호 모스크비방송, 루쓰까야 슬루쥬바 노보스페이방송, 인터네트통신들을 비롯한 출판보도물들, 중국의 인민망, 중국보도망, 일본의 교도통신, 《니홍제이자이신붕》, 《도꾜신붕》, NHK방송, 영국의 로이터통신, 신문 《인디펜던트》, 미국의 UPI통신, CNN방송, ABC방송, 뉴스뉴스도 이 소식을 전하였다.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진문헌들을 정중히 모시였다.

본사기자

당대회결정관철에로 천만군민을 총궐기, 총발동시키는 불씨가 되고 불길이 되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참가자들의 맹세문채택모임 진행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친 휘황한 설계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전인민적총동원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혁명적기상이 온 나라에 차넘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진행된 당대회에서 주체혁명위업완성의 불멸의 대강을 받아안은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언제나 심장깊이 간직하고 백두의 붉은 혁명정신과 자강력제일주의로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선봉대, 기수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당 제7차대회 참가자들의 맹세문채택모임이 11일 4.25문화회관에서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 영광의 대회장에서 뜻깊은 모임을 가진 대회참가자들은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김영남동지, 황병서동지, 박봉주동지, 최룡해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당 제7차대회 참가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김정은장군찬가》가 주악되였다.

모임에서는 대회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을 김영훈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장이 랑독하였다.

맹세문은 전체 대회참가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이룩할 철석같은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패이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주체의 태양, 선군태양으로 받들어모시며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사상도 뜻도 운명도 함께하는 우리 당의 제일전우, 제일동지가 되겠습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삶과 투쟁의 유일한 라침판으로 삼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당의 유일사상이 꽉 들어찬 투사, 심장속에 오직 우리 당의 붉은 피만이 흐르고 혁명열, 투쟁열로 요동치는 사상과 신념의 거인들로 자신들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불변궤도를 도는 별무리처럼 자나깨나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생각하고 앉으나서나 원수님의 승결로만 맥동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원히 당을 따르는 한길만을 곧바로, 끝까지 이어나가겠습니다.

수령사수, 당중앙결사옹위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조선로동당원들의 변함없는 제일생명입니다.

몸은 비록 수천척지하막장이나 심심산골에 있다 해도 자기 혁명초소를 당중앙을 굳건히 지켜선 일선참호로 여기고 당과 수령을 일편단심 충정으로 받들고 옹위해나가는 앞서가는 선구자가 되고 견인기가 되겠습니다.

당대회결정관철의 기본열쇠는 대중의 정신력발동에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정치사상사업을 첨입식으로 벌려 천만군민을 전례없는 대중적영웅주의에로 불러일으키겠습니다.

력사적인 당대회보고에 대한 전당적, 전사회적학습열풍을 일으키는것으로부터 새로운 총공격전의 포성을 울리며 천만군민을 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당대회결정관철에로 산악같이 일떠세우겠습니다.

당에서 중시하는 문제들과 대상들에 정치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여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정신이 차넘치고 새로운 비약과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당대회결정관철을 당앞에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남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생눈길도 남먼저 헤치며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선구자가 되고 견인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인민을 위한 길에서 언제나 자신과 숨결과 발걸음을 같이할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인민앞에 무한히 겸손하며 인민이 바라는 일, 인민이 덕을 볼수 있는 일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하는 참된 충복이 되겠습니다.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가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는데서 추호도 용납할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이번 대회를 계기로 그 근원까지 송두리채 뿌리를 아버리겠습니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첫 당대회 참가자라는 자랑스러운 부름이 우리를 떡떠로 분발시키고있습니다.

우리모두를 당의 핵심,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로 내세워주는 당의 믿음과 기대를 심장에 새기고 당대회참가자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로동당의 붉은 기발이 펄펄 휘날리고 비약의 불길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형, 위대한 장군님형의 정치활동가로 튼튼히 준비하여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선군혁명의 전위투사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오늘의 맹세를 심장깊이 새기고 끝까지 지켜나감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에서 획기적전환을 가져온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우리 당력사에 길이 빛내여나갈것을 엄숙히 맹세하였다.

맹세문랑독이 끝나자 손에손에 붉은기를 억세게 틀어쥔 모임참가자들이 터치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자!》라는 구호의 함성이 장내를 진감하고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의 노래합창이 울려퍼지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위업완성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총진군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으로 존엄높은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을 만천하에 떨쳐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강습 진행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강습이 11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새로운 도약기가 펼쳐지고있는 력사적인 시기에 소집된 당 제7차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억년 드놀지 않는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높은 목표와 투쟁강령을 제시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는데 목적을 두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기본정신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을 발휘하여 총공격전, 총결사전을 벌림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것이다.

웅대한 목표와 혁명적로선과 정책들을 제시한 대회는 사회주의위업완성을 위한 새로운 리정표를 세우고 전당, 전군, 전민을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로 되였으며 대회참가자들이 당대회결정관철의 앞장에서 주체혁명의 새시대 전위투사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강습에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수행방도들이 취급되였다.

《영광의 대회장에서 다진 맹세를 지켜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최룡해동지, 최태복동지가 출연하였다.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높은 정치적열의속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 력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 가장 성대한 대정치축전이며 가장 긍지높은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이라고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는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휘황한 앞길을 밝힌 불멸의 기치이고 주체혁명의 백년대계의 진로를 열어놓은 위대한 강령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합니다.》

출연자들은 전체 대회참가자들이 당대회보고에 대한 학습으로부터 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의 첫걸음을 힘있게 내짚을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당대회보고에 대한 학습열기로 끓어번지게 하여야 한다.

온 사회에 당대회보고에 대한 학습열이 차넘치게 하는데서 대회참가자들이 불씨가 되고 불길이 되여야 한다.

혁명앞에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혁명적인 학습열풍을 일으켜 대중을 각성시키고 끊임없는 대고조를 안아온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투쟁방식이다.

력사적인 70일전투의 철야진군속에서 이룩된 눈부신 승리는 학습열풍이자 곧 생산열풍이며 대고조성과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현실적인 관철방도를 찾는 방향에서 당대회보고에 대한 학습을 심화시켜야 한다.

당대회보고학습을 실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 결부하여 진지하게 하여야 한다.

혁명투쟁과 실천활동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김일성-김정일주의리론과 방법들이 전면적으로 체계화되여있는 당대회보고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준 백과전서적인 정치대강이다.

대회참가자들은 당대회보고에 대한 학습을 기본내용뿐이니라 그 수행방도와 정당성, 생활력을 깊이 파악하는데 중심을 두고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출연자들은 대회참가자들이 천만군민을 당대회결정관철에로 총궐기, 총발동시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대회장을 나서는 길로 들끓는 현실속에 전투과지를 정하고 대중을 당대회결정관철에로 총궐기, 총발동시켜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와 70일전투를 계기로 비상히 앙양된 대중의 혁명적열의가 그대로 당대회결정관철에로 이어져 승리에 더 큰 승리를 안아오도록 하여야 한다.

우선 대중의 정신력을 당대회결정관철에로 총폭발시켜야 한다.

당대회결정관철의 성과는 대중의 정신력발동에 달려있다.

지난 70일전투의 승리가 그대로 보여주듯이 당의 사상과 뜻을 심장으로 받들고 일떠선 인민의 힘은 위대한 기적과 혁신을 안아오는 근본원천이다.

우리는 70일전투의 그때처럼 당대회결정관철에서 대중의 정신력발동을 기본열쇠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당대회참가자들모두가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는 진격의 나팔수가 되고 선전원, 선동원이 되며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정치사업을 대상의 특성과 준비정도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벌리며 대회참가자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대중의 심장이 대회결정을 철저히 관철할 일념으로 고동치게 하여야 한다.

온 나라에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총공격전의 기상이 힘차게 나래치도록 모든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화를 지펴올리기 위한 혁명의 북소리가 세차게 울려퍼지게 하여야 한다.

또한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야 한다.

당대회는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하며 조국통일과 세계자주화위업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 우리 당의 대외정책과 당의 강화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회주의경제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인민경제발전을 위한 단계별전략을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해나가며 당면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한 과업을 밝히였다.

대회참가자들은 당대회에서 제시된 전략적인 로선들과 과업들을 놓고 그 관철을 위한 목표와 계획들을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광범한 군중의 의견을 충분히 종합한데 기초하여 토의를 심화시켜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목표를 명백히 설정하며 현실적조건과 가능성을 타산하여 그 실현을 위한 계획들을 면밀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대회참가자들은 이번 70일전투에서 온 나라에 소문난 전형단위들의 경험을 적극 살려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정형을 드세게 장악하고 총화하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여러가지 경쟁운동도 잘 조직하여 경쟁열풍이 온 나라를 뒤덮고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널리 벌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출연자들은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일본새를 혁신하는것은 당대회결정을 철저히 관철하며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지니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전심전력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우리 당은 인민생활문제를 천만가지 국사가운데서 제일국사로 내세우고있다.

인민이 주인된 우리 나라에서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것은 없다.

대회참가자들은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인민관을 따라배워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여야 한다.

일군들은 인민을 위한 길에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여 부러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고 인민들이 좋아하는 일, 인민들이 바라는 일을 하나라도 더 찾아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여야 한다.

인민생활은 자신들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걸린 문제들을 수시로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 자강력제일주의를 더욱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 자강력제일주의는 당대회결정관철에서 일군들이 지녀야 할 투쟁정신이다.

우리는 당이 준 과업을 기어이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특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대로 며칠거리를 올해안으로 최상의 수준에서 전설함으로써 세계가 알지도 못하고 알수도 없는 주체조선의 필승불패의 전통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인 자강력제일주의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천만의 심장에 기둥처럼 세워주신 자강력제일주의는 70일전투승리의 위력한 보검이였다.

이것은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도 역시 승리의 열쇠는 자강력제일주의에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연길폭탄정신과 전화의 포화속에서 높이 발휘된 군자리혁명정신으로 자력갱생, 간고분투함으로써 당대회결정관철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무슨 일이나 우리 인민의 지향과 리익,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우리 식으로 설계하고 우리의 력량과 기술, 우리의 자원과 자재로 해나가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

백승의 무기가 자강력이라면 그를 믿음직하게 담보하는것은 과학기술이다.

과학기술을 경제강국건설의 기관차로, 과학전선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으로 내세운 당의 의도를 명심하고 무슨 일이나 과학기술적으로 파악하고 과학기술적요구대로 하는것을 생활화하며 현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누구나 다 기술혁신의 선구자, 새 기술의 창조자가 되여야 한다.

전진하는 대오의 기수가 되고 척후병이 되여야 한다.

《나를 따라 앞으로!》라는 구호를 웨치며 생눈길과 진창길도 앞장에서 헤치고 사지판에도 선참으로 뛰여들어야 하며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서슴없이 맡아나서야 한다.

대회참가자들은 당에 대한 무한한 충정과 높은 실력을 겸비함으로써 조직사업도 탁력있게 하고 집행도 번개처럼 하여 대중을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적극 떠밀어야 한다.

언제나 병사들과 인민들속에 있으면서 땀냄새, 흙냄새도 같이 맡으며 그들을 영웅적위훈과 새 기적창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당원대중이 지켜본다는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겸손하고 소탈한 품성을 지녀야 하며 말보다도 행동을 중시하는 실천력이 강한 진짜배기당원이 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믿음과 사랑에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보답하기 위하여 언제나 대중의 앞장에 서서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한다.

강습에서는 《우리 당의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라는 제목으로 룡흥리장연전집골강의가 진행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전집골을 보면서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충정의 70일전투기간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수많은 기계설비들을 개발, 제작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선물을 마련한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투쟁정신을 깊이 체득하였다.

당중앙의 의도대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나갈 때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압살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당 제7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만리마속도창조운동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위훈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창조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전체 강습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쳐갈 드높은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강습은 천만군민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경축

모란봉악단, 청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 《영원히 우리 당 따라》 성대히 진행

백전백승의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이 펼쳐준 만년대계의 진로우에 인민들의 진정에 넘친 로동당만세,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시대를 격동시키며 끝없이 메아리치는 속에 11일 수도 평양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경축 모란봉악단, 청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 《영원히 우리 당 따라》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선군조선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고 영광스러운 우리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정치축전으로 빛내인 주체혁명의 분수령에서 이 세상 제일 위대한 어머니의 송가, 불멸의 로동당찬가들로 환희로운 경축무대를 펼치게 될 공연장소는 격정으로 설레이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참가자들, 무력기관 일군들, 충정의 70일전투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운 공로자들, 평양시안의 각 계층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경축 제일본조선인축하단,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을 비롯하여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공연을 보았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 무관부 부들과 대사관성원들, 외국손님들이 초대되였다.

선군혁명의 제일나팔수, 당의 믿음직한 예술선구자부대들인 모란봉악단과 청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예술인들은 절세위인들의 슬하에서 로동당시대 문예부흥기를 열고 력사적인 당대회들을 명작창작으로 빛내여온 전세대 문예전사들의 투쟁전통을 이어 어머니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노래선물을 마련함으로써 5월의 대축전장을 뜻깊게 장식하였다.

백두의 넋과 기상을 안고 세계를 앞서나가는 위대한 당, 찬란한 김정은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과시하며 애국가의 장중한 음악으로 시작된 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뉘여 진행되였다.

《지원》의 사상으로 개척된 력사의 새벽길로부터 세기와 세대를 이어오며 혁명의 려정에 영원한 투쟁의 진군가, 신념의 찬가로 울려퍼지고있는 불후의 명작 《남산의 푸른 소나무》가 민족자주사상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계속혁명사상으로 승승장구해온 조선로동당의 영광넘친 행로를 감명깊게 펼쳐보이며 판현악과 남성합창으로 첫 무대에 올랐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존함으로 빛나는 영광의 년대들에 천만심장을 로동당의 붉은 피로 높뛰게 한 명곡들을 새롭고 특색있게 형상한 경음악과 노래련곡 《위대한 조선로동당 만세》, 혼성4중창 《어머니의 목소리》, 남성합창련곡 《당의 기치따라》, 《친리마 달린다》, 녀성3중창과 방창 《당을 노래하노라》, 경음악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경음악과 노래련곡 《내 운명 지켜준 어머니당이여》, 카무련곡 《우린 사랑한다》 등의 종목들을 무대우에 펼쳐놓았다.

인민의 운명을 간직한 주체의 당기를 백승의 기치로 높이 추켜드시고 우리 당을 일심단결의 강력한 전위대, 선군혁명의 참모부, 인민의 위대한 향도자로 강화발전시키시어 주체조선의 강성번영을 위한 만년기틀을 다져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한 노래들은 장내를 뜨겁게 울려주었다.

《ㄷ, ㄷ》와 더불어 밝아온 혁명의 려명기에 황일의 전구들을 주름잡으며 메아리친 혁명가요들로 《딸찌산노래련곡》을 펼친 판현악과 남성합창은 우리 당의 억센 뿌리이고 피줄기인 백두의 혁명전통이야말로 선군조선의 영원한 백전백승의 기치임을 심장깊이 새겨주었다.

당을 어머니로 노래한 기념비적송가 《어머니당이여》가 태여난 때로부터 장장 수십성상 인민의 마음속에 수천길 바다속 진주와도 같이 빛을 뿌려온 로동당찬가들을 들으며 관람자들은 이민위천의 한생으로 사회주의대지에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서사시를 수놓아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려와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향도따라 준엄한 시련의 언덕을 넘고넘으며 혁명의 머나먼 길을 충직하게 걸어온 천만군민이 주체혁명의 분수령에서 긍지높이 떠치는 승전포성인양 혼성중창과 남성합창 《신심드높이 가리라》, 판현악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가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당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여 만민이 부러워하는 수령복, 당복을 누려가는 인민의 끝없는 행복과 영광이 황홀한 음악세계로 펼쳐지는 속에 무대에 오른 혼성중창과 남성합창 김일성상, 김정일상계관작품 《세상에 부럼없어라》, 무반주합창 《사랑하노라》와 당 제7차대회를 향한 70일전투의 나날에 태여난 송가들인 녀성중창 《영광드립니다 조선로동당이여》, 《인민의 축원》은 위대한 어머니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 영원한 사회주의찬가로 뜨겁게 메아리쳤다.

일편단심 당중앙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을 대를 이어 끝까지 걸어갈 천만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분출된 혼성중창과 남성합창 《우리의 신념》으로 공연은 절정을 이루었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완성의 휘황찬란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쳐나아가는 참된 전위대오가 있기에 조선로동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 확신을 안겨준 공연은 김정일상계관작품 판현악과 노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로 끝났다.

우리 식의 경음악과 판현악, 합창을 배합한 새롭고 특색있는 예술형식, 가수들의 참신하고 세련된 형상과 풍만하고 장중한 울림, 화려한 무대장치 등 주체예술의 눈부신 발전면모를 과시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대절찬을 받았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력사에 특기할 승리와 영광의 대회를 환희로운 경축무대로 뜻깊게 장식한 모란봉악단, 청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새로운 리정표따라 당대회과업관철을 위한 총진군포성을 힘차게 울려갈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혼연일체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한 의의깊은 대정치축전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가고있는 온 나라 천만군민은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으로 되는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뜻깊게 경축하였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가슴가슴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직책인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환희로 설레이고있으며 당 제7차대회가 펼쳐준 휘황한 설계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억센 신념과 불타는 열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천만년 드놀지 않을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리정표를 세운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우리 당력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당 제7차대회가 소집되게 된다는 격동적인 소식을 받아안은것은 지난해 10월말이였다.

천만군민이 당창건 70돐을 선군조선의 혁명적대경사로 성대히 경축한 승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새로운 총진군속도를 창조해나가고있던 시기에 발표된 당 제7차대회소집과 관련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는 온 나라를 세찬 격정과 환희로 들끓게 하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당 제7차대회를 계기로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위용을 더욱 높이 떨칠 드높은 혁명적열정에 넘쳐 산악같이 일떠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뜻깊은 올해신년사는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에 새로운 박차를 가해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우리 당과 인민이 틀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이라고 하시면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을 안고 총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백두령장의 전투적호소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천만군민은 새로운 출발진지, 공격진지를 차지하고 당 제7차대회를 향한 혁명적진군을 더욱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다그쳐나갔다.

당중앙이 정한 백승의 침로따라 특대사변들로 세계를 진감시키며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하여 폭풍노도와 같이 전격해나가는 총진군대오에 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발표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가 힘차게 울려퍼졌다.

공동구호에서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세상을 놀랬다놓는 기적을 련이어 창조하여 혁명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갈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을 충정의 70일전투에로 산악같이 불러일으키시였다.

전체 당원들에게 보낸 당중앙위원회 편지는 절세위인의 열화같은 심장의 호소가 맥동치는 애국의 격문이였으며 수백만 당원들과 천만군민이 백두의 칼바람정신과 자강력제일주의를 필승의 무기로 틀어쥐고 혁명적진군에 떨쳐나서게 한 불멸의 기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당과 온 사회의 사업기풍과 일본새에서 일대전환을 일으키시기 위해 첨단식정치사상사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주시고 70일전투의 첫야전군에서 만리마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창조, 창출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이 총동원되여 들끓는 전투장들에서 방송선전, 직관선전, 강연선전, 예술선동 등 정치사상사업이 힘있게 벌어져 대중의 정신력과 창조력이 비상히 앙양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힘찬 진군을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날뛰는 적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가하고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무적의 군력으로 확고히 담보하시기 위하여 경제와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높이 추켜드시고 주체조선의 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였다.

핵공격수단들의 다종화, 다양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개발자들을 사망의 한골에 안아주시며 몸소 바다가발사장까지 찾으신 백두령장의 정력적인 령도와 애국헌신은 국방과학부문에서 다계단으로 변을 일으킨 원동력으로 되였다.

당중앙이 열어놓은 승리의 진격로따라 천만군민은 창조와 증산의 뢰성을 힘있게 울리며 70일전투전역에서 영웅적인 만리마신화들을 창조하였다.

원쑤들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빼앗으려고 발악하면 할수록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올라 전국적인 전투계획이 공업생산액적으로 144%로 넘쳐 수행되는 눈부신 혁신이 일어났다.

력사적인 70일전투의 대승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령도의 위대성에 대한 힘있는 실증이였으며 천만군민의 열화같은 애국충정의 뚜렷한 과시였다.

지난 5월 6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열렬한 축하와 키다린 기대속에 당 제7차대회가 성대히 개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회의 개회사에서 대표자들과 온 나라 전체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다함없는 충정과 열화같은 경모의 마음을 담아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시고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장대성의 상징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들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드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의 먼길을 걸어오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항일혁명투사들과 선군혁명전우들을 비롯한 사랑하는 혁명전사들을 잊지 않으시고 영광의 대회장에서 영생의 삶을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경건히 우러르는 전체 대회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서는 뜨거운 격정이 솟구쳐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보고에서 총결기간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중앙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시였으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내세우고 사회주의위업의 완성과 조국의 자주적통일,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휘황한 앞길을 밝힌 불멸의 기치로, 주체혁명의 백년대계의 진로를 열어놓은 위대한 강령으로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심장깊이 새겨안았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의 대표자이시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강대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며 열광적인 박수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대회장은 만민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으시는 절세의 위인, 탁월한 령도자를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격정과 환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드팀없는 신념과 불같은 열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 제7차대회 폐회사에서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의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중임을 맡겨준 대표자들과 전체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최대의 신임과 기대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한몸을 아낌없이 내대고 굴함없이 싸워나갈것을 엄숙히 맹약하시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온 나라 천만군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당 제7차대회가 펼친 사회주의위업완성의 휘황한 설계도따라 대약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세계만방에 떨쳐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진행된 당 제7차대회는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밑에 백두의 대업을 완성해나가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을 이룬 의의깊은 대회합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천만군민의 크나큰 감격과 환희가 온 나라 강산에 뜨겁게 굽이치는 가운데 5월 10일 당 제7차대회를 경축하는 평양시군중대회 및 군중시위가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수령의 당》, 《어머니당》, 《강철의 당》, 《일심단결》,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 《청년중시사상 만세!》 등의 글발이 새겨진 가장물들과 함께 용용히 물결쳐가는 당기발대렬, 군인가족대렬, 복종대렬을 비롯한 시위대렬들은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줄기차게 전진시켜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청년강국으로 빛내여가는 조선로동당의 영웅적행로를 시사시적화폭으로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존엄한 력사의 폭풍우속에서 오직 당만을 굳게 믿고 승리하여온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위업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나아가는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힘있게 떨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당 제7차대회를 경축하여 성대하게 진행된 평양시군중대회 및 군중시위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자강력제일주의정신으로 총공격전, 총결사전을 벌림으로써 당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높은 목표와 투쟁강령을 반드시 실현해나갈 천만군민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이날 저녁 당 제7차대회를 경축하여 진행된 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청년전위들의 홰불행진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 백두산청년강국의 주인공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 500만 청년전위들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려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한 위대한 혼연일체의 대회로,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자기 힘을 굳게 믿고 신심드높이 전진하는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억센 기상과 불패의 위력을 온 세상에 뚜렷이 보여준 승리자의 대회로,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천만군민을 적극 고무추동한 새로운 혁명적총진군의 대회로 우리 당력사에 찬연한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김승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로력적선물

나라의 해상운수발전에 이바지하는 자랑찬 성과

령남배수리공장에서 5 000t급무역짐배 건조

령남배수리공장에서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로 5 000t급무역짐배를 무었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무은 5 000t급무역짐배는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에 매여달리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정수리를 호되게 후려치고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를 앞당겨가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개를 다시금 만천하에 과시하는 자랑찬 창조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6년전 단천항건설장을 찾으시여 령남배수리공장에서 무역짐배를 시범적으로 건조해보면서 앞으로 령남지구를 대선박건조기지로 꾸릴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특혜운성에서는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높이 무역짐배건조를 위한 단계별목표를 뚜렷하게 세운데 기초하여 배무이를 일정계획대로 강하게 밀고나갔다.

성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해운판리국에서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물동수송을 보장하는 긴장한 속에서도 당 제7차대회를 계기로 배를 전수시킬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일판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갔다.

령남배수리공장 로동계급이 막아서는 모든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말로써가 아니라 심장을 내대고 무조건 철사관철하고야마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투쟁정신과 기풍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이들은 배무이라는 초행길에 주저없이 떠여들어 높은 기능을 요구하는 여러 대상들에 대한 조립작업에서 높은 속도와 질을 보장하였다. 이 나날에 기존상식으로는 3일이 걸린다는 주기판토대설치작업을 주야전투를 벌려 단 하루만에 완성하면서 배건조기일을 앞당겨나갔다. 건조과정에 건조법과 제작, 조립, 검사에서 기술적문제가 수시로 제기되였지만 이들은 공장의 현존설비와 장비들로 해결할 방도들을 찾아내여 배무이를 중단없이 밀고나갔으며 수십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여 속도를 높여나갔다.

한달음에 만리를 내닫는 기적창조의 소식이 매일과 같이 충정의 70일전투기록장에 뚜렷이 새겨졌다.

제판직장 로동자들은 수t에 달하는 후판을 가공하여 선미마스트를 60여시간만에 완성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종전같으면 100t의 강판을 제판, 용접하는데 한달이상 걸렸지만 이번 전투기간 로동자들은 단 한주일동안에 해제끼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배건조종합작업반의 용접공들도 눈에 충혈이 지면서도 하루 용접계획을 150%로 넘쳐 수행하여 연 1만 7 000여m의 방대한 용접과제를 앞당겨 끝내였다.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운 탄산가스생산공정의 운영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여 70일전투기간 배무이를 줄기차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였다.

이번에 5 000t급무역짐배건조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우리의 힘과 기술로 대형무역짐배건조성과를 계속 확대하여 나라의 해상운수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5t급화물자동차 제작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에서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에서 새형의 115hp디젤기관을 리용한 5t급화물자동차를 개발하였다.

이 성과는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자랑찬 선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70일전투청야진군을 힘차게 다그쳐온 기업소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 그리고 련관단위 근로자들의 애국충정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으로 될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여야 합니다.》

기계공업성의 일군들은 충정의 70일전투기간에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과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디젤기관을 리용한 새형의 5t급화물자동차를 개발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의 기술자, 기능공들, 3대혁명소조원들은 단계별목표와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낮과 밤을 이어가며 치렬한 전투를 벌려나갔다. 이들은 크랑크련결대기구와 윤활계통, 랭각계통에 선진기술을 받아들이며 디젤기관설계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였다. 제판, 가공부문의 로동자들은 70일전투기간 최상의 성과, 최고의 로력적위훈을 창조할 애국충정의 일념안고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수천종에 달하는 부속품들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생산보장하였다.

국가과학원과 김책공업종합대학,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의 과학자, 연구사들을 비롯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고무제품성분분석 및 제작공정확립과 기계침탄 및 탄질화공정확립 등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 새형의 자동차생산의 국산화비중을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연구집단은 세계적수준의 과급기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내고야말겠다는 야심만만한 배짱을 안고 지칠줄 모르는 열정으로 탐구에 탐구를 거듭하여 끝끝내 훌륭히 완성함으로써 자동차의 기관마력을 훨씬 높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자랑찬 선물을 마련한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그 기세, 그 기력으로 나라의 자동차공업발전에 보다 큰 성과로 이바지할 애국충정의 열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진군속도를 더욱 높여가고있다.

본사기자 정경철

청진뻐스공장에서

청진뻐스공장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70일전투기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새형의 《진달래》뻐스들을 만들어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공장에서 새로 제작한 뻐스들은 형태가 새롭고 장거리려행을 하는 인민들의 리용상편리를 위해 의자의 안충작용을 고려하여 설계되였을뿐아니라 텔레비존을 보며 려행할수 있는 등 여러가지 우점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새형의 뻐스들을 만들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특혜운성 자동차운수관리국과 공장일군들은 충정의 70일전투기간 새형의 뻐스들을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낼 높은 목표를 세우고 한달 남짓한 기간에 설계를 완성하였으며 련관단위들과의 긴밀한 협동밑에 뻐스생산에 필요한 자재들을 선행시키는데 주되는 힘을 넣었다.

또한 뻐스제작에 필요한 지구장비생산을 다그치면서 설비들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추진시켰다.

뻐스조립직장 로동자들은 자체의 힘으로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를 만들어낸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투쟁본때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차체를 훌륭히 만들어냈다.

가공직장 로동자들은 새형의 뻐스를 제작하는데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부분품가공속도를 높여 뻐스조립기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였다.

의장품생산을 맡은 전기직장과 차체조립을 맡은 궤도전차조립직장을 비롯한 여러 직장로동자들도 충정의 7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일념으로 힘찬 투쟁을 벌려 새형의 뻐스를 만들어내는데 한몫 단단히 하였다.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마련한 공장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뜻깊은 올해에 새형의 뻐스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자신만만한 배짱안고 계속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글 본사기자 리영민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기술경제적의의가 큰 새로운 변압기,전동기 개발

국가과학원에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국가과학원에서 무정형철심을 리용한 변압기를 연구제작하는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기계공학연구소와 전기연구소의 과학자들이 개발한 무정형철심을 리용한 변압기는 기술경제적의의가 매우 큰 첨단기술제품으로서 국가과학원에서 어머니당 제7차대회에 드린 고귀한 충정의 선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가과학원에서는 과학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전망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과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훌륭히 풀어나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정형철심을 리용한 변압기는 현재 보편적으로 쓰이고있는 규소강판철심변압기에 비해 무부하전력손실이 훨씬 적은 우점을 가지고있다.

이러한 새형의 변압기제작에서 핵심기술은 야금공학, 규산염공학, 열공학, 정밀기계제작기술, 력학, 자동화기술을 비롯한 여러 기술공학분야를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기술집합체인 급랭련속주조에 의한 무정형합금띠생산기술로서 지금까지 기술이 발전되였다고 하는 불과 몇개 나라의 독점품처럼 되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일찌기 전기기계들에 쓰이는 철심재료를 국산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이러한 첨단기술을 우리 과학자들이 개발할데 대하여 간곡한 교시를 주시였다.

국가과학원에서는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주신 이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이 연구과제를 직접 맡은 기계공학연구소의 과학자들과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에서는 한치도 물러설수 없다는 숭고한 자각을 안고 최근 2-3년동안 본격적인 연구사업을 진행하여왔다.

실장 조희철동무를 비롯한 급랭주조종합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소장 공훈과학자 교수 박사 최용호동무를 비롯한 연구소일군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고무속에 급랭련속주조에 의한 무정형합금띠생산기술을 기어이 확립하는것을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선물로 마련할 대담하고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이들은 미제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에 견승하면서 우리의 진전을 탈가와하지 않고 과학자들의 국제적인 학술교류의 길에까지 차단봉을 내리운 추종세력에게 조선의 과학자들의 본때를 보여줄 결사의 각오드높이 기술신비주의와 보수주의를 짓부시고 부닥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과감히 뚫고나가면서 끝끝내 현존조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던 무정형합금띠생산기술을 확립하고야말았다.

그리하여 충정의 70일전투목표로 내세웠던 무정형합금띠진행을 기어이 생산해내고야말았으며 기계공학연구소를 70일전투에서 과학연구부문의 전형단위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연구사 리석준, 실장 리계철동무를 비롯한 전기연구소 전기기계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소장 박사 김광혁동무를 비롯한 연구소일군들의 힘있고 째인 조직정치사업에 따라 기계공학연구소 과학자들이 끝끝내 만들어낸 소중한 자력자강의 창조물인 무정형합금띠를 리용하는 새로운 변압기를 처음으로 설계제작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국가과학원의 여러 연구소들의 협동작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연구제작된 무정형철심을 리용한 변압기시제품의 무부하전력손실은 종전의 규소강판철심변압기에 비해 42% 적다고 한다.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첨단기술제품인 무정형철심을 리용한 변압기가 연구제작된것은 전기기계분야에서 큰 의의를 가질뿐아니라 앞으로 무정형합금띠를 확대도입하여 여러 분야에서 가져오게 될 커다란 전변을 예고하는것으로 하여 전문가들의 주목을 끌고있다.

본사기자 려명희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대안전기공장에서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대안전기공장에서 새형의 에네르기절약형 4 000kVA변압기와 150kW영구자석동기전동기, F급절연을 실현한 132kW밀폐형전동기를 개발하였다.

나라의 전력공업과 기계공업발전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이 성과는 70일전투의 불길높이 전례없는 공격속도로 내달려온 대안로동계급이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또 하나의 자랑찬 로력적선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기계제작기술의 최신성과에 토대하여 새형의 현대적기계설비들을 세계적인 수준에서 설계제작하고 계렬생산공정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4 000kVA변압기는 에네르기절약형의 랭각주름관식변압기이다. 이 변압기는 용량이 같은 종전의 랭각관식변압기에 비해 랭각효과가 15%나 높고 전력손실은 평균 40%이상 적다. 뿐만아니라 동, 철판, 변압기유를 비롯한 자재를 훨씬 절약하고 45° 철심절단공정을 도입함으로써 제작원가를 10%이상 줄이고 무부하손실도 훨씬 줄이였다.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대안전기공장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국가과학원 자동화연구소 연구사들과 합심하여 사장되여있던 45° 철심절단기를 원상복구하고 CNC화를 실현하였다.

새형의 변압기생산에서 랭각주름관은 핵심부분이라고도 말할수 있었다. 공장일군들, 기술자, 로동자들은 철심절단기의 CNC화와 함께 랭각주름관생산설비제작전투에도 과감히 진입하였다.

경험도, 특별한 기술참고자료도 없었지만 이들은 오늘날 시대가 바라는 만리마의 기수는 과학기술봉마의 기수라는 자각안고 어려운 기술적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갔으며 드디여 설비제작에 성공하게 되였다.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들은 과감한 생산돌격전을 벌려 두대의 변압기를 짧은 기간에 만들어 시운전에서 단번성공하고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에 보내주었다.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로력적선물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은 150kW영구자석동기전동기, 132kW밀폐형전동기개발전투장에서도 힘차게 벌어졌다.

기계공업성 일군들과 공장일군들, 로동계급은 132kW밀폐형전동기개발을 위한 설계와 기술준비로부터 제작, 시험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였다. 밤낮이 따로 없는 철야전투로 날과 날이 흐르고 불가능을 모르는 조선로동계급의 본때와 기질이 남김없이 과시되는 속에 두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우리 식의 밀폐형전동기 두대가 제작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새로운 밀폐형전동기의 개발과정에 총질량과 체적은 종전의 개방형전동기에 비해 31%, 28%이상 줄이였으며 동, 규소강판, 강재는 각각 18%, 24%, 36%이상이나 절약되였다.

기계공업성 일군들과 공장일군들, 기술자, 로동자들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과의 협동작전을 과감히 벌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150kW영구자석동기전동기도 개발완성함으로써 우리의 주체적력량과 과학기술의 힘에 의거하면 불가능이란 없다는 진리를 다시한번 실천으로 증명하였다.

70일전투의 철야진군속에서 나라의 전력공업과 기계공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변압기, 전동기들을 개발한 대안전기공장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새 제품개발의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진군을 계속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김충성

무정형철심을 리용한 변압기

새형의 에네르기절약형 4 000kVA변압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동포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평양 5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1일 박영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태양민족의 천만년미래를 담보하는 억년기틀을 마련해주시였으며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독자의 편지 변함없는 사랑과 정으로

제가 이렇게 펜을 든것은 영예군인인 저를 위해 온갖 성의를 다하고있는 공순화, 전정금동무를 비롯한 선교구역종합식당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아름다운 소행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과 알게 된지도 어느덧 여러해가 지났지만 저를 위해주는 그들의 진정은 날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만 가고있습니다. 사업으로 늘 바쁜 속에서도 자기들의 성의가 깃든 보약도 안겨주고 척척해할세라 역정탈레비존과 측전지도 마련해준 그들입니다. 어찌 보면 친어머니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친누이와도 같은 그들, 정말이지 때없이 찾아와 생활의 구석구석을 돌봐줄 때면 고맙다는 말밖에 더 다른 말을 할수 없는것이 안타깝습니다.

70일전투기간에도 그들은 전화로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련이어 이룩되는 전변의 소식들을 자주 전해주면서 저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얼마전 저의 처가 갑자기 앓아누웠을 때였습니다.

그때 앞을 못 보는 저의 심정은 어때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종합식당아래 선교짜장면집 책임자 리태실동무와 장영화동무를 비롯한 종업원들이 들어서는것이였습니다. 그들은 70일전투로 바쁜 속에서도 치료대책도 세워주고 귀한 약재도 마련해주면서 저의 처가 하루빨리 완쾌되도록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그들도 한가정의 주부들입니다. 하지만 저와 저의 가정을 위해 뜨거운 사랑과 정을 기울이니 그들을 대할 때마다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내 나라가 제일이라는 생각에 눈굴을 적시며 혁명의 꽃을 더 활짝 피워나갈 결의를 다지군 합니다.

선교구역 선교1동
48인민반 김경수

봄풍치에 비낀 고상한 모습

만물이 소생하는 봄계절이다.

화창한 자연의 경치도 좋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류다른 봄풍치가 이 땅 그 어디에서나 펼쳐지고있다.

그것은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성대히 맞이한 거리와 마을, 일터와 가정마다에서 더 활짝 꽃펴나는 고상하고 문명한 생활기풍, 아름다운 도덕기풍과 더불어 우리 인민이 누려가는 보람찬 사회주의생활의 참모습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치는 사회주의문명국입니다.》

온 사회에 고상하고 건전한 도덕생활기풍을 확립하는것은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중요한 요구이다.

사회주의적도덕기풍은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가장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기풍이다. 우리 인민은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있으며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값높고 보람있는 생활을 누리고있다.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는 혁명적의리와 고상한 례의도덕, 서로 돕고 이끄는 미덕의 향기와 건전하고 문명한 우리 식의 생활양식이 활짝 꽃펴나고있는것이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이 빠른 속도로 다그쳐지고있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만리마시대 인간들의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와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발양되고있다.

어딜 가나 혁명열, 투쟁열이 끝없이 넘쳐흐르고 젊음과 열정으로 약동하는 활기찬 모습들이 뜻깊은 이채의 봄계절을 이채롭게 단장하고있다. 단정하고 아름다운 옷차림과 몸단장에도, 고상한 언어례절에도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 안겨사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넘쳐난다.

얼마전 우리와 만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한 청년통맹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즘 혁명적인 도덕생활기풍을 확립해나가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절실히 느끼군 합니다.

대학생들속에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먼저 생각할줄 알고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는 숭고한 도덕의리,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적도덕기풍이 날을 따라 더욱 활짝 꽃펴나니 봄을 맞은 교정의 풍치가 한결 더 아름다와지는것 같습니다.》

도덕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크다. 그것은 옷차림과 머리단장, 하나하나의 말과 행동에도 그 사람의 정신상태와 문화수준, 사회의 분위기와 풍조가 비끼기때문이다.

일찍부터 동방례의지국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온 우리 나라에서는 부모를 극진히 존경하고 형제나 친척들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며 이웃들과 의좋게 사는것을 가풍으로, 자랑으로 여겨왔다. 유구한 력사와 더불어 면면히 이어져온 이러한 아름다운 도덕기풍은 오늘도 변함없다. 거리와 마을, 일터와 가정들에서 혁명선배를 존대하고 웃사람과 자기를 배워준 스승을 존경하며 아래사람들을 사랑하고 애기어머니를 비롯한 녀성들을 아끼고 우대하는 기풍이 넘쳐나고있다. 특히 자라나는 새 세대들속에서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우는 사회적기풍이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으며 많은 청년들이 탕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초소로 용약 달려나가는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가 높이 발휘되고있다.

날로 꽃펴나는 사회주의문명과 우리 인민의 고상한 도덕생활기풍은 도로와 유원지, 공원과 휴식터를 비롯한 공공장소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거리에 나서면 교통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고 공원과 유원지의 나무 한그루, 의자 하나도 자기 의것처럼 아끼고 애호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 어디에나 비껴흐른다.

옷차림과 몸단장을 하나 해도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게 하고있으며 혁명적이며 고상한 언어생활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고있다.

우리의 문화어는 통지적단합과 화목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특히 우리 말에서 부름말은 그 어느 나라 말보다 매우 풍부하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웃사람에 대한 부름말, 동무들사이의 부름말, 아래사람에 대한 부름말로 갈라져있는 우리 말은 사람들사이에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사회성원들의 화목과 단합에 이바지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아름답고 고상한 우리 인민의 정신세계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봄풍치에 비낀 우리 시대 인간들의 아름답고 고상한 모습, 진정 그것은 절세위인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따라 만리마속도로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참모습이며 사회주의문명을 향유하며 보다 희망찬 래일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열정과 기상,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홍성철

온 나라에 굽이치는 환희와 격정, 불같은 맹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성과적진행소식에 접한 각계의 반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목표와 혁명적로선과 정책들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과 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고 전당, 전군, 전민을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로 될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추대한 한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이 나라 천만군민의 가슴가슴은 결사의 의지, 혁명의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으로 세차게 높뛰고있다.

위대한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하여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는 우리 수백만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를 발휘하여 이 땅우에 기어이 국력이 강하고 풀없이 륭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울 불같은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추켜들고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부기사장 서승관은 련합기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총정의 70일전투기간 당이 맡겨준 발전설비생산과제를 기한전에 완수하고 충성의 보고를 드렸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 제7차대회 보고에서 기계공업은 경제발전과 기술적진보의 기초이라고 명백히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계제작공업에서 공구가 가지는 의의를 깊이 통찰하시고 공구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시였으며 몸소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공구문제해결의 방도를 구체적으로 다 밝혀주시였다.

공구는 기계제작공업에서 생명과 같다. 측정설비와 공구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기계공업의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이 문제해결의 기본열쇠는 자강력을 높이 발휘하는데 있다.

우리 련합기업소가 년대와 년대를 이어가며 기적과 위훈을 창조할수 있게 한 기본원동력도 다름아닌 자강력이다.

우리 대안의 로동계급은 어제도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오직 자기 힘을 믿고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해나갈것이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 기사장 지철룡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보고를 자자구구 학습할수록 경제발전과 기술적진보의 기초인 기계공업부문을 지켜선 책임감이 더욱 무거워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에 제시된 기계공업부문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실현하자면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돌이켜보면 우리 룡성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안겨주신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나라의 기계제작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여왔다.

18m타닝반, 3천t, 6천t, 1만t프레스, 70m대형문형평삭반, 9만㎥압축기, 지열설비제작 등 년대와 년대를 이어 당이 준 과업을 결사관철할수 있은것은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살며 투쟁해왔기때문이다.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첨단설비들을 새로 장비하는것과 함께 이미 있는 기계설비들의 성능을 개선하고 올연생산세포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겠다. 그리고 새형의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설계제작하고 계렬생산공정을 확립하여 만리마시대 룡성로동계급의 본때를 다시한번 과시하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추대한 격동적인 소식에 접하고 온 철산봉이 크나큰 격정과 환희로 세차게 끓어번진다고 하면서 무산광산련합기업소 1부기사장 리히철은 이렇게 토로하였다.

최근년간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랄한 경제기술적봉쇄속에서도 우리는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3호대형원추형과 쇄광과 장거리벨트콘베아, 수천t페석광사를 일떠세우고 선광장들의 현대화를 실현하였다.

특히 70일전투기간에 지난 시기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경이적인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이 모든 성과들은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이 낳은 자랑찬 창조물들이다.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인 우리 조국을 경제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워야 할 영예롭고도 무거운 임무가 바로 우리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어깨우에 지워져있다.

강철생산이자 곧 국력이다.

우리 무산의 로동계급은 나라의 금속공업의 생명선을 지켜선 맏아들답게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앞당겨 점령하는 투쟁의 맨 앞장에서 철정광증산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만리마속도창조의 선구자가 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 기사장 최염일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강령적지침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토로하였다.

자력자강은 우리 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기질이다.

총정의 70일전투기간 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자강력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새 화차제작과 수리, 세로지구 축산기지건설장을 비롯한 주요전투장들에 필요한 대상설비생산과제를 빛나게 넘쳐 수행하였다.

이 나날 우리는 자기의 힘을 믿고 떨쳐나서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리를 새겨안고 차축용사선반의 CNC화를 실현한것을 비롯하여 여러 생산공정들의 현대화를 실현하였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자강력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생산공정들의 기술개건을 다그쳐 현대적인 철도수송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겠다.

어랑천발전소건설지휘부 일군 리주덕은 지금 발전소건설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결사관철할 불같은 맹세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고있다고 하면서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보고에서 전력문제를 푸는것은 5개년전략수행의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중심고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을 우리 도에 통채로 맡겨준 당의 믿음이 우리모두의 심장을 다시금 높뛰게 한다.

자력자강의 정신만 있으면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이 우리가 실생활을 통하여 체득한 진리이다.

우리들은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올해 기어이 어랑천5호발전소건설과 어랑천4호발전소 물길굴공사를 완공하며 어랑천3, 4호발전소건설, 팔향언제건설을 다그쳐 끝냄으로써 당에서 제시한 전력생산목표를 앞당겨 점령하는데 이바지하겠다.

경제강국건설의 앞장에 서겠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부원 한성철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보고에 접한 강선의 로동계급은 당대회결정관철에서 다시금 시대의 선구자가 되여야 한다는 자각을 심장깊이 새기였다고 하면서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우리 강선로동계급은 당의 부름을 받들고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12만t의 강재를 뽑아냄으로써 천리마시대의 선구자가 되였다. 온 나라가 고난을 겪을 때 현대야금공업의 정수라고 하는 초고전력전기로를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워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선봉에 선것도 우리들이다.

우리 강선의 새 세대 로동계급은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 과업관철에서도 만리마의 고삐를 틀어쥔 시대의 선구자가 되겠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로동계급의 리없이 깨끗한 량심과 의리로 받들어온 영광스러운 전통을 꽃꽂이 이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전국의 앞장에 서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부기사장 리효선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 제7차대회에서 우리 나라 화학공업발전의 휘황한 전망을 밝혀주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흥남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최근년간 촉매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랑할만 한 성과를 거두었다. 암모니아합성촉매와 란산카스탈류촉매생산기지를 꾸려놓고 비료생산에 리용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을뿐아니라 기업소의 기술자, 로동자들은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련관단위 연구사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여러가지 촉매를 전부 국산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우리는 뇨소공정의 한개 계렬개조와 암모니아합성탑 타보순환기계통개조, 탈륨공정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등 일관을 통이 크게 벌려 생산능력을 1.3배이상 끌어올림으로써 사회주의농촌에 더 많은 비료를 보내주겠다.

순천화력발전소 로동자 렴진옥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소식에 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회보고에서 전력문제를 푸는것은 5개년전략수행의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중심고리이라고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보고를 받아안은 우리 전력생산자들은 경제강국건설의 척후병, 개척자답게 전력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 5개년전략수행에 이바지할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존엄높은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추대한 소식에 접한 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70일전투에 이어 전력생산은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우리 순천화력발전소의 로동계급은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전력생산의 앞장에 서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신의주철도분국 분국장 홍성일은 격동된 심정을 금치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우리 철도운수부문앞에는 유일사령지휘체계를 엄격히 세우고 수송조직을 파학화, 합리화하며 급물을 강화하여 철도수송의 신속성과 정확성, 원활성과 안전성을 보장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나라의 철도망을 더욱 완비하고 철길의 중량화, 고속도화를 추진하자면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우리 분국의 수송전사들은 자체의 힘으로 철길들을 이음목없는철길로 바꾸어 철길통과능력을 최대로 높이겠다.

그리고 기관차, 화차수리기지들을 보다 현대적으로 꾸리고 실동태수를 늘여 증송의 기적소리를 더 높이 울려가겠다.

총정의 70일전투기간 맡은 수송과제를 원만히 수행하면서 많은 량의 격차들에 대한 수리정비와 가열도장을 끝내고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마련하던 그때의 그 지력자강의 정신만 있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 제7차대회 보고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제시하시였다고 하면서 특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특장청년탄광 지배인 전학철은 격정에 넘쳐 이렇게 말하였다.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사이 균형을 보장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자강력제일주의를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심장깊이 새길수록 정안남도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석탄생산이 기본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간곡한 유훈이 되새겨진다.

지난 70일전투기간 석탄생산에서 새 기준, 새 기록을 돌파하던 그 기세, 그 본때로 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유리한 갱들에 투자를 집중하여 더 많은 석탄을 캐내려는것이 우리 일군들과 탄부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현재 생산조건도 좋고 생산량도 또한 부쩍 늘어나고있다.

이 기세로 우리는 종전보다 능률적인 채탄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선탄공정을 더욱 완비하며 질좋은 석탄을 펑펑 생산하여 화력발전소들에 보내주겠다.

인민생활향상에서 일대 전환을

황해남도농촌경리위원회 부위원장 최광준은 우리 조국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우뚝 올려세우시고 이 땅우에 창조와 건설의 일대 번영기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추대한것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영광이며 긍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자면 농업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우는데서 우리 황해남도가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크다.

지금 도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올해농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함없는 감사를 드리며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지켜선 본분을 다할 불같은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총정의 70일전투기간 전투목표를 빛나게 점령하고 당면한 영농전투에 떨쳐나선 우리 도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기세는 지금 하늘을 찌를듯 높다.

우리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잘 지어 뜻깊은 올해에 도알에 맡겨진 알곡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추대한 끝없는 영광과 기쁨을 안고 황성군인민위원회 일군 조현숙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신 황금산의 력사를 끝없이 빛내여갈 불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 제7차대회 보고에서 지방들에서는 력사적인 창성련석회의정신을 구현하여 자체의 힘으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한 작전을 주도세밀하게 하고 지방경제를 특색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군의 지방공업공장들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총정의 7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 상반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켰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군지방공업공장들의 생산공정을 보다 현대화하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여 명제품, 명상품들이 폭포처럼 쏟아지게 하겠다.

그러자면 일군들부터가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는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 황금산의 노래가 끝없이 울려퍼지게 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보고에서 전국도처에 일떠세운 현대적인 축산기지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귀중한 밑천이라고 하시였다고 하면서 자강도목장관리국 기사장 김광성은 이렇게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도에 마련해주신 홍주닭공장, 강계돼지공장, 강계오리공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축산기지들에서 고기와 알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고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그처럼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눈부신 현실로 꽃피우는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본분이다.

우리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에 당에서 마련해준 현대적인 축산기지들이 축산물생산에서 능력을 다 내도록 종금알, 종자돼지, 먹이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것과 함께 시, 군들의 닭, 오리공장들과 젖소목장을 현대화하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알이 차례지게 하겠다.

그리하여 인민들속에서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리게 하겠다.

대홍단군 5호농업경영위원회 기사장 송철은 당 제7차대회에서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을 뵈옵고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면서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어려있는 우리 대홍단군은 당의 현명한 령도아래 감자농사의 본보기군으로, 사회주의리상촌으로 전변되였다.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가 확립된 우리 군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속에 마련된 프락또르와 감자수송용자동차, 감자파종기와 감자수확기를 비롯한 능률높은 농기계들과 운수수단들이 영농작업에서 큰 은을 내고있다.

이 자랑찬 성과들은 백두삼천리벌에 새겨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우리는 당 제7차대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관철에 더욱 힘찬 박차를 가하여 대홍단군을 세계최고의 감자산지로, 인민의 웃음꽃이 만발하는 복받은 대지로 더욱 빛내이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강령적지침이라고 하면서 남포수산사업소 지배인 강경수는 이렇게 토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보고에서 수산전선에서 비약을 일으켜 황금해의 력사를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이 제시한 수산물생산목표를 점령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우리 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과학수산이자 물고기잡이실적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조아박고 우선 고기배와 어구의 현대화를 힘있게 내밀겠다. 그리고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기상예보, 해상지휘, 물고기가공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는것과 함께 배수리와 배무이실적을 높여 물고기잡이와 수산물생산실적을 올리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잘해나가겠다.

사리원대성타올공장 작업반장 리명옥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 보고에서 경제강국건설은 현시기 우리 당과 국가가 총력을 집중하여야 할 기본전선이라고 밝혀주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강국은 생산력발전수준과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일뿐아니라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인민의 락원이라는데 그 참다운 면모와 본질적특징이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인민생활향상에서 우리 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무겁다.

우리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경공업을 빨리 발전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설비들의 현대화를 다그치고있다.

우리는 당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생산을 활성화하여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겠다. 특히 새 제품개발과 질제고에 힘을 넣어 다양한 타올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겠다.

특파기자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힘있는 과시

지난 55년간 2만 4 950여개의 단위가 26호모범기대단위(2중 포함)칭호를, 2 790여개의 단위가 26호모범기대영예상을, 420여개의 단위가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을 쟁취

목란꽃에 바쳐가는 뜨거운 진정

아름다운 꽃이나 잎이 무성한 나무에는 그것을 심고 가꾸는 사람의 마음이 비끼기마련이다.

하다면 우리가 찾는 주인공들, 이 땅의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만발하는 조선의 국화인 목란꽃에 뜨거운 진정을 바쳐가는 사람들의 가슴속에는 과연 무엇이 가득차있는것인가. 그 사연들을 전하고싶어 얼마전 우리는 취재길에 올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목란을 곳곳에 많이 심어 우리 나라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찾아낸 목란꽃의 주인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인민군대에 입대하면서 모란봉에 목란꽃나무를 심은 고은경동무였다.

마침 그의 아버지인 고명철동무가 모란봉구역원림사업소에서 일하고있어 우리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저 우리 은경이가 조국을 받드는 길에서 한송이의 목란꽃이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뜻깊은 결혼식날에 애국의 마음을 더욱 굳게 약속하며 모란봉에 올라 나무를 심는 신랑, 신부의 모습에서 눈길을 뗄수 없었던 그때로부터 시작되였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고명철동무는 오래도록 한자리에 앉아있었다. 왜서인지 낮에 보았던 그 광경이 좀처럼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던것이다.

그날 밤 부부간에는 이런 말이 오고갔다.

《여보, 우리 은경이가 군대에 나가기 전에 자기 손으로 나무를 심게 하기요. 조선의 국화인 목란꽃나무를 말이요.》

《그게 좋겠어요. 아마 은경이를 훌륭하게 자래우는 더없는 밑거름이 될거예요.》

밑거름, 여기에 참으로 깊은 뜻이 담겨져있음을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다 듣고서야 알게 되였다.

어려서부터 외동딸로 부모의 남다른 사랑을 받아온 은경이, 언제나 실력이 뛰여나 부모의 자랑이였던 그가 상급학교에 갈수도 있었지만 조국보위초소에 서게 된것은 지식의 탑을 쌓기 전에 열렬한 애국의 뜻을 먼저 새기게 하고싶은 이들의 응심깊은 마음에 의해서였다.

한가정의 딸만이 아닌 조국의 참된 딸이 되라는 마음, 엄떡마디의 말로도 대신할수 없는 간곡한 그 당부를 담을수 있는 그것이 바로 목란꽃이라고 고명철동무는 생각했던것이다.

그로부터 엄마후 모란봉에 뜻깊은 화폭이 펼쳐졌다.

군대에 입대하는 날 아버지의 도움속에 자기 손으로 목란꽃나무를 심는 은경이의 모습이.

단순히 식물의 뿌리가 이 땅에 내려진것만이 아니였다.

조국보위초소에 서는 한 병사의 마음속에 애국이라는 거목을 떠받들 억센 뿌리가 내린 순간이였고 바로 조선의 슬기를 담고 아름답게, 순결하게 피여나는 목란꽃처럼 살려는 애어린 처녀의 심장의 맹세가 이 땅에 울려퍼진 시각이였다.

그때로부터 고명철동무는 딸을 대신하여 목란꽃나무를 정성껏 가꾸어가고있다.

우리가 취재길에서 알게 된 은경이와 같은 목란꽃의 주인들은 헤아릴수 없이 많았다.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확신했다.

온 나라에 만발해가는 목란꽃, 그것은 조국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더욱 빛내이려는 이 땅의 수많은 애국자들의 모습이며 나날이 짙어가는 그 향기와 더불어 우리의 래일은 더없이 밝고 창창하리라는것을.

본사기자 조 향 미

위대한 장군님께서 모범기대창조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신 때로부터 55돐이 되였다.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은 지난 55년동안 전국의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 과학, 교육, 보건부문을 비롯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급속히 확대되여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2만 4 950여개의 직장, 공장, 기업소들이 26호모범기대, 2중 26호모범기대단위로 되였고 2 790여개의 직장, 공장, 기업소들이 26호모범기대영예상을, 420여개의 직장, 공장, 기업소들이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을 쟁취하였으며 그 대렬은 계속 늘어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은 우리 당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를 포괄하는 대중적운동으로 발전하여왔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100(2011)년 3월 30일 력사적인 로작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요구에 맞게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데 대하여》를 발표하신것은 당의 령도밑에 심화발전되여온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확증하고 이 운동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이끌어올리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직총중앙위원회와 농근맹중앙위원회에서는 설비관리분야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설비관리, 기술관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기계설비와 생산공정의 현대화, CNC화를 실현하며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직총중앙위원회에서는 우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널리 해설선전하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직총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작업복을 입고 대중속에 들어가 기대공들과 함께 기대정비도 하면서 장군님의 명언 《나의 사상을 알려거든 나의 일터와 나의 기대, 나의 제품을 보라!》, 이것이 우리 시대의 애국자들이 웨치는 심장의 구호이다.》와 회상실기 《몸소 26호선반을 돌리시며》에 대한 해설선전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여 대중의 심장마다에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새겨주었다.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종합선전관을 잘 만들어 대중교양에 리용하는 사업을 밀기하고 적극 추진시킴으로써 모두가 이 운동에 높은 정치적열성을 가지고 참가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단위들에서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의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정양방직기계공장, 창성식료공장, 정양무궤도전차공장,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검덕광업련합기업소, 2.8비날론련합기업소,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를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의 본보기단위로 내세우고 도와주는 사업을 짜고들어 이 단위들이 좋은 경험을 창조하도록 하였으며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령도업적단위들이 26호모범기대영예상, 2중 26호모범기대영예상을 쟁취하도록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최첨단들과 사상을 높이 받들고 직총중앙위원회에서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기사, 기수, 고급기능공대렬장성, 기계설비들과 생산공정의 현대화, CNC화 등을 반영하여 26호모범기대관정기준을 높이 세우고 운동수준을 한층 높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현지지도하시면서 우리 식 현대화의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공장, 기업소들을 본보기로 하여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기계설비와 생산공정의 현대화, CNC화를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우리 식 현대화의 불길속에 정양방직기계공장, 정양어린이식료품공장, 원산구두공장, 평양화장품공장을 비롯한 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우리의 힘과 기술, 원료와 자재, 설비에 기초한 국산화와 생산공정의 흐름선화, 자동화, 무인화, 생산현장의 무진화, 무균화를 실현하여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 크게 기여할수 있게 되였다.

또한 목요설비점검점열의 날, 매월 첫주 26호모범기대정비주간, 3월 26호모범기대정비월간운영을 실속있게 하며 설비점검점열위원회의 역할을 높여 기계설비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함으로써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여왔다. 평양326전선공장을 비롯한 많은 공장, 기반, 기업소들에서 설비점검점열위원회의 역할을 높여 설비관리, 기술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즉시에 총화대책함으로써 생산정상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공업, 수산, 건설, 운수, 체신, 비생산부문에서 최근 5년동안에만 하여도 13만 8 970여대의 기계설비가 26호모범기대(2중, 3중 포함)칭호를, 2만 6 370여개의 작업반이 26호모범기대작업반(2중, 3중 포함)칭호를, 1 310여개 직장이 26호모범기대직장(2중 포함)칭호를, 1 800여개의 공장이 26호모범기대공장(2중 포함)칭호를 쟁취하였다. 또한 30여대의 기계설비와 390여개의 직장, 360여개의 공장, 기업소가 26호모범기대영예상(2중 포함)을 쟁취하였다.

농근맹중앙위원회에서는 해마다 본보기단위를 정하고 일군들이 현지에 나가 한급 높은 칭호를 쟁취하도록 불러일으키고 도와주는 사업을 알심있게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본보기단위들에서 창조된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도 짜고들었다. 출판보도물을 통하여 본보기단위들의 경험을 적극 소개선전하는 한편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여 전국의 농업부문 단위들에 일반화하였다. 신의주닭공장,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황주군농기계작업소를 비롯하여 본보기단위들이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을 제일먼저 쟁취하였으며 그 대렬은 날로 늘어나고있다.

설비점검점열위원회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고 도안의 수십개 령도업적단위들이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에서 앞장서도록 적극 추동함으로써 큰 성과를 이룩한 함경남도농근맹위원회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내밀었다.

모범기대창조운동발단 55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이 운동에서 비약적인 성과를 안아올 목표를 내세운 농근맹중앙위원회 일군들은 농업부문의 본보기단위로 내세운 정원군 원화협동농장에 자주 나가 절린 문제를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는 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였다.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사상교양수단인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종합선전관을 통일적으로 만들어 권기단위들에 배포하기 위한 사업을 올해에 집중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미 2 000여개 단위에 대한 종합선전관배포가 끝났으며 올해말까지 나머지단위들에 대한 배포를 끝낼 계획밑에 적극 추진시키고있다.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동향록장을 통한 교양사업도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대책을 세웠다. 설비관리와 관련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와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과 관련한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과 덕성회상실기내용, 이 운동의 발단과 발전력사 등을 반영하여 사상교양적의의가 있게 동록장의 내용을 개선하였으며 통일적으로 만든 동록장을 단위들에 내려보내여 그를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도록 대책을 세웠다.

결과 올해에 26호모범기대작업반, 직장, 공장, 농장칭호를 수여받은 단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번 70일전투기간에만도 70여개 단위가 한급 높은 26호모범기대칭호를 쟁취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훌륭히 확립된 공장이라고 높이 평가하여주신 평양기초식품공장과 올해에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을 쟁취한 대동강축전지공장을 비롯하여 많은 단위들이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을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을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기간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에서 이룩된 이 모든 자랑찬 성과들은 탁월한 대중적설비관리사상을 제시하시고 숭고한 모범과 헌신으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과 그이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각급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과 일군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감으로써 설비관리분야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며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 향 란

ㄱ-61077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본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6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